

내꿈을 養鷄에 심고

비 놓 전부는 육종사업 위해...



누구나 이만한 나이에 홀로 앉아 있노라면 영사기의 필름처럼 기쁘고 괴로웠던 지난 일들이 떠올라 추억속에 짐기는 일이 허다하겠지만 양계와 더불어 살아온 반생을 새삼 얘기 하라하니 가슴속에 서리가 끼듯 감회가 인다.

내가 처음으로 양계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무렵만해도 그 때의 양계는 지금의 양계와는 모든 면에서 판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소규모의 농가 부업형태로 맥을 이어가던 우리나라의 양계는 그나마 6.25동란으로 더욱 침체하여 계란과 닭고기 값은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식품이었다 그러나 지금 소규모의 양계농가들은 대규모로 기업, 전업화되었으며 계란과 닭고기도 국민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식품으로 식탁에 올려지고 있다.

◇ 정미소의 빈창고에서 부화시작

내가 처음 양계업에 몸을 담은 것은 9.28서울수복후 어느 박씨라는 분이 찾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빈 창고를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묻자 그 창고에서 부화를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 때 나는 정미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박씨에게 창고를 빌려주고서는 옆에서 부화를 시키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며 흥미를 갖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박씨의 부화는 21일후에 단 한마리

박 도 현

(한협 가금육종농장 대표)

의 병아리도 나오지 않은 걸로 그쳤나 몇 번을 계속해도 마찬가지 이어서 옆에서 보다 못해 내가 직접 해보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설마 내가 내 여생을 양계업에 투신할 계기가 되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던 것이었다. 시설은 그대로 있는 것을 사용하여 갑별계에서 원로급이신 김영석(현 경기농장 대표)씨와 동업으로 동신종축장을 시작한 것이 내 나이 38세 때였다 이 때 김영석씨는 우리나라의 현실정으로 미루어 육종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으며 나는 부로일려를 하여 자본이 형성되어야만 육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견해 차이를 빚었으나 둘다 모두 육종사업에 대한 열의는 마찬가지였다 원래 내 성질은 한가지 일에 집념하게 되면 그 일에 몰두하여 다른곳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이어서 이것이 내 단점이 되기도 한다. 만일 내가 그 때 육종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당시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융통성있는 외국계를 취급하거나 다른 경제적 이익에 신경을 썼다면 현재의 상황은 아마 많이 달라졌으리라. 그러나 누가 뭐라해도 내 의지는 나 자신도 모르게 육종개발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은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우수한 병아리를 공급 영세한 양계농가가 수익을 올려 잘 살수 있느냐에만 몰두했었던 것 같다.

협성가축약품공사

◎ 가축예방약

◎ 치료제

◎ 소독약

◎ 사료첨가제

◎ 기타국내외약품

총판

상담수의사: 연 투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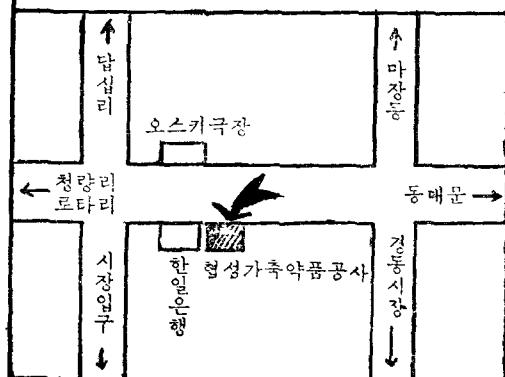
★ 가축질병상담

★ 지방주문환영

TEL 주간 967) 8779
야간 966) 923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54

청량리 오스카극장 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 육종사업의 난관은 끝없이

우선 육종방향을 강건성의 병아리와 산란지수의 주된 방향으로 삼고 개량을 시작하였다. 각 연구기관의 연구가와 대학에 계신 학자들은 물심양면으로 우리의 사업을 도와주어 원종계 확보를 하는 동시에 계통내 우량개체 및 가계선별을 하여 출·종개량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반면 일반 양계가에는 계통좋은 병아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다. 이 때 농가에 공급되는 병아리는 직접 내가 선별해야 만 마음이 놓였으며 약주는 아무리 병아리 숫자가 부족해도 절대로 공급하지 않고 자체 사육하였다. 1957년도에는 휘경동에 브로일러 10,000수의 육추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1년마다 판매량이 50%씩 증가했을 만큼 호경기를 탔으며 1959년에는 상봉동에 종계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언제까지의 번영은 없어 어려움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1960년 4.19의 학성이 전국에 울려 퍼질때 우리 양계장에는 뉴캣슬이 찾아와 병아리는 전멸하다시피 하였다. 우리는 그때 사업상 걸어섰던 부채를 이자는 갚지 못한채 원금만 돌려 줘야 했으며 양계농가에는 영세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런 역경속에서도 동신명아리는 양계업자에게 점점 신용을 받아 매년 30~40%씩 수요가 증대하였다. 항상 내 경영의 신조랄까 하는 것은 입자들에게 신용을 지키는 것이었으며 이 단순한 진리가 내 유일한 자본이 되어 오늘의 이 날을 만들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 무렵 1960년 1961년도의 우리나라 양계업은 전체 닭 수수 1,200만수에 규모는 그때까지도 농가의 부입형 태를 벗어나지 못해 200수 내외의 규모가 대부분이었으며 1,000수 정도의 양계장은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였다.

그러나 경기는 비교적 좋은 편으로 인식되어 양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었으나 이에 필요한 양계기술의 보급은 전혀 백지 상태였다.

◇ 가금협회 태동 무렵 순수와 열성으로 봉처

그 당시 양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도 1957년도부터 몇몇 부화인(강금노, 이정희, 김원복, 이창열, 김현배, 본인 등)이 모여 조직한 서울부화협회가 있었으며 서울시 양계조합 가금연구회 등이 있었으나 이렇다할 기술교류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양계인들은 양계기술습득을 갈망하게 되었으며 이 결과 이루어진 것이 장안동 양계친목회 주최의 양계강습회였다. 이 양계강습회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였으며 이 모임이 결국 한국가금협회 태동의 시초가 되었다. 이 가금협회는 업자와 학자가 한국양계업의 발전을 목표로 혼연일체되어 모인 단체로 산학협동의 기반위에 그 취지를 다지고 있었다. 나는 1962년 가금협회 창립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무엇이 사람들을 그토록 순수하게 결속시켰던가 하는 생각이 듦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주머니를 털어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처리했으며 밤이 늦는 줄도 모르고 머리를 맞대고 앉아 대책을 논의하면 그야말로 열성적이고 순수했던 시절이었다. 1963년 정관 및 출원소속을 하여 농림부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서를 내었으나 반려되어 이에 대한 재설립작업을 김현배, 김영희, 이재근, 오봉국, 차두홍, 강호년씨와 본인들이 서울에서 여관을 정하여 같이 합숙을 하던 생활이 난다. 이 때 무교동 대폿집들의 일화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1964년 12월에 정식으로 사단법인 허가가 남으로 해서 한국가금협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던 것이었다.

◇ 우후죽순처럼 외국계의 도입이 남발되던 시절

또한 1963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잡종강세를 이용한 채란계를 생산하기 위한 외국종계(P·S)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양계업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케 되었다. 나도 내 심혈을 기울이던 육종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만

들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계를 수입하여 시판하기 시작했다. 이 외국계 수입은 날이 갈수록 남발하여 많은 외국계 품종이 우후 죽순처럼 무질서하게 수입되었으며 마침내 우리나라의 양계생산물은 과잉생산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그때까지는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가금질병(마렉병, 뇌척수염, CRD)이만연하여 업계의 불황이 자초되었으며 업자와의 거래질서는 점차 붕괴되고 있었다. 이 혼란이 나로 하여금 국내 품종의 육종개발에 대한 뜻을 더욱 다지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침 우리 품종의 산란지수와 난중문제가 업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결되게 되자 나는 수입하여 기르던 세이버 종추를 모두 처분하였다. 그러나 육종사업에는 원래 내가 각오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연이어 생겨났다

하나의 난관을 타개하면 또 다른 난관이 산처럼 앞을 가로 막는게 아닌가?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생겨나기 마련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는 말은 이럴때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으나 육종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자본을 대는 일이란 정말 힘든 것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금씩 처분하여 보충 하여도 끝이 없었다. 나는 이럴때마다 이 사업은 개인사업이기 이전에 국가적인 사업이어야 正道를 가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곤 했다. 이 중에서도 우리는 1966년 덕송리와, 1968년 산곡리 농장을 건립하였으며 1969년에는 김현배, 윤병성씨와 함께 서울사료를 건립하였다. 이는닭에게는 우선 제대로 된 사료를 먹여야 한다는 것과 쓸어져 들어오는 외국상사에 대항하여 국내양계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설립취지였다. 이 때 나는 사채를 얹어 투자를 했으며 이 사료를 팔기 위해 병아리를 무상으로 배부하였던 기억이 난다. 이 때 다행히 백색산란계(한협 122호)의 능력이 성공단계에 있었으며 이미 양계협회의 경제능력 검정에서나 일반 양계가의 시험사육에서 능력이 인정되고 있었다.

◇ 한협의 출범

양계업에 관여하고 있는 학계와 업계가 합심하면 육종사업은 필경 발전하리라는 신념속에서 주위사람들의 많은 협조를 받아 1972년도에는 마침내 한협가금육종농장(株)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種禽改良 과증식 가금부화 및 보급 가금생산물가공처리 및 유통, 가금기술자양성, 기술자 보급, 간행물발간, 가금에 관련된 수출입문제, 가금사료 및 기구제조의 목적으로 원대한 계획하에 회사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많은 협조자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 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시장개척의 난관, 입자의 인식부족으로 회사의 경영은 점점 어려움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만일 이 때 업계에서 확실한 신념과 자본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면 우리나라 춤종개량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되고 발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 혼자만의 바램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때의 위기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비였다고 기억된다. 내 반평생을 바쳐온 이 육종 사업을 이것으로 종식시키느냐 아니면 또 다른 탈출구를 찾느냐는 심각한 고민이 나를 당황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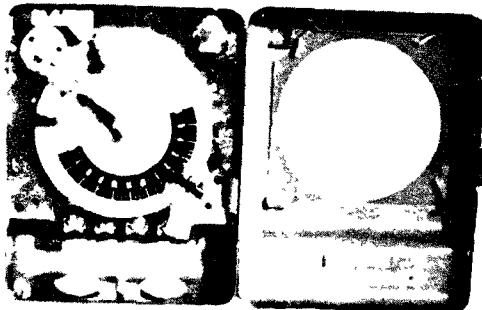
했다 허탈감은 억제할길 없이 밀려들었으 며 누구에게라고 지목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타버릴 것 같았다.

우리나라에도 인젠가는 확고부동한 협조하여 육종회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뜻은 누구나 변함이 없겠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양계업계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회사설립이 시기상조였던 것이었다.

마침 1974년 농수산부 사책중 국산계 개량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침으로 외국계 수입이 전면 중지되었다.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다른 각도로 경영방침을 바꾸어 1975년 다시 한협가금육종농장을 설립하여 종계보급에 힘을 기울였다. 이때부터 육계개량에도 정진하여 한협 603호 초대형 전용육계 作出し에 성공, 1975년에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한 육용계 능력검정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1976년도에는 기어이 1위를 차지하여 능력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그러므로써 한협은 우리나라 종계수요량의 40%를 공급하였고 1977년도에는 70%를 공급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육종사업에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뒷받침해준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

타임스윗치
日本NATIONAL社製



養鷄器具
부분품 (유리) 입하 판매중!
西独HENKE社製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093
대체저금구좌서울515528

나 아직 우리나라의 양계업은 외국에 의존하는 타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지속될지 모르지만 내 생명이 지속하는 한 이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신념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도 국제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품종의 육종개량을 이루어 세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품종을 생산하는 것이 내 최대의 꿈이요 목표다.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품종이 세계도처에 사육되고 이용되고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것 이상의 기쁨은 없겠다.

지금 돌아켜 생각하면 내가 이 육종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시장성을 보고 시작했

◇ 세계 시장에도 우리의 닭이 진출하는 것이 내 꿈

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앞으로는 선진국에 못지 않게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 또 한 한협가금육종농장을 더욱 성장시켜 학계와 업계의 육종에 대한 뜻을 규합하여서라도 우리나라 양계업을 위해서라면 기업을 국가에 활용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육종방향이 설정되어 우리도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내실(内實)에 충실히 보다 나은 품종개량을 위한 재투자가 철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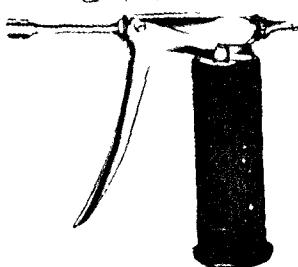
◇ 내 남은 여생도 육종사업에

우리나라에서 영구히 육종사업이 지속되길 바라는 이 마음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모두 원하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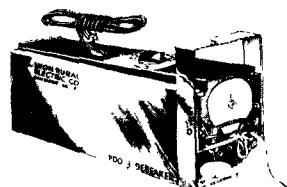
또한 우수한 인재를 찾아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육종사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이 방면의 권위있는 연구 가와 기술자를 동원하여 과감히 연구비를 지급 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他國에 못지 않은 육종회사를 다져나갈 것이며 농장의 시설을 개선, 보강하여 환경변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하여 보다 알찬 경영을 이루어 볼 셈이다. 내 반생은 육종사업에 대한 꿈에 바쳐졌고 내 모든 그동안의 어려움을 기억화 보는 지금도 내 남은 여생도 또한 이 꿈을 위해 기꺼이 바쳐지리라는 것을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이 육종사업은 어느새 내 生이 되었기 때문이다.

専門메이커 製品으로!

연속주사기



부리절단기



英國KAYCEE社製

美國LYON社製

輸入畜產器具社

販売店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7-5 TEL. 29-2013, 35-2461